

학생회보

제 6호 위싱턴주 한국학생회 1973년 6월
SMITH HALL RM31, U of W



학생회 임시총회 개최 예정

지난해 10월 이래 본 학생회의 회장으로 수고해 오신 우현 형께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 하시기 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임시 총회를 개최하려 하오니 회원 여러분 전부의 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시: 1973년 6월 12일 (화요일)
 저녁 8시
 장소: Thompson Hall (135호)

우진오 박사 來訪

전 高大 총장과 신민당 당수를 역임한 바 있는 현병학자 우진오 교수께서 식애를 이주시어 학생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U.W에서 아시아 관계 교수 및 학생들과 세미나를 마치고 가진 이 간담회에서 우박사는 국내외 정세와 한국의 장래에 관한 여러가지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신바 있다.

이 소식 저 소식

이영재 형 --- 지난 5월 23일 공주를 얻으셨음.

조대성 형 --- 지난 달 L.A.에서 열린 ASPO (美口都市계획실무자 협의회)에 참석하시었음.

오근호 형 --- 요양공학과에 박사과제 시험에 합격하시었음.

멜리 한 형 --- 한국어 과를 졸업하시게 되는 한형. 여러개 대학원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어느 곳을 고를지 고민중. 여하를 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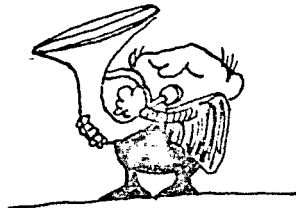
김흥기 형 --- 정치학과 박사과정 시험에 합격하시었음.

서진영 형 --- 정치학과 박사과정 시험에 합격하시면서 득남. (축하)².

김동호 형 --- 식물학과 박사과정 시험에 합격하시었음.

박지용 형 --- 지난 달에 귀국하신 박형. 식애를 이신 여러 학생회원들에게 안부 전해 달라는 내용의 문안 편지를 보내 보심.

表紙: 피카소의 畫 贈 美大



參 與 意 識

우 재 건

어느集團에의 참여는集團 구성원 이 共同體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表現함으로써 共同體의 중요한 정책 결정과 그 결정의 實踐, 그리고 그 實踐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價値의 分配과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있다. 그러므로 참여의식은 즉 공동체 의식이다. 즉 共同體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 따라서 「나의 문제」라고 느끼는 의식 인바, 이는 나의 공동체 및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同一視 (identification) 하는 감정과 利害의식 (interest)에 의해서 나르나게 마련이다. 흔히 말하는 애국심, 소속감, 同類의식, 일체 감정 등은 이와 같은 同一視 감정에 바탕을 둔 것이며 利害集團이나 壓力 團體 등의 참여는 利害에 근거한 것이다. 모든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동일시 감정과 이해 관계의 相互依存에 의해서 그 기능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에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과는 큰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즉 구성원의 참여가 활발한 집단은 구성원들의 이해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결정과 그 실천이 끊임 없이 계속되어 부단히 발전 지향적인 모임이 될 것이며 반대로 구성원이 무관심하고 소외 현상을 느끼게 되면 그 집단을 정취적이고 빈약한 모임

밖에는 될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前提下에서 우리 학생회의 현상을 분석해 보고 보다 바람직한 학생회가 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려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다.

우리 학생회원들 간에는 같은 혈족, 같은 직업 (학생), 같은 민족, 같은 文化 등 同類性 (homogeneity)에 근거한 同一視 감정은 不可避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의 일이 「우리의 일」 내지는 「나의 일」로 보각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미 4번재의 참여 동기를 위하여 지적 한 이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즉 학생회 활동에 참여 하는 것이 개인의 이해인 이목 상관이 없다고 느끼지는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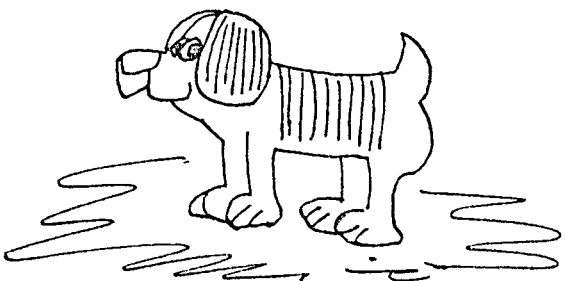
그렇다면 회원들의 이해 증진과 복지 향상과 직접 관계되는 학생회의 활동이 요구 될 것이다. 그러나 학생회의 프로그람과 회원들의 적극 참여 의의 사이에는 "달려 달걀"의 관계가 있음을 주시 해야 하겠다. 여기에 논의의 출발점 자체를 「우리의 문제」 (we-feeling) 의식으로부터부터 시작해도 무방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생회의 성공적인 운영이 우리의, 그리고 나의 길이며, 혹시 학생회의 현상이 바람직 하지 못할 입장에 놓여 있다면 그것 역시 내가 이에 관한 똑같은 과해자로 동시에 共同者라는 의식을 갖는 지혜의 관제 위에 학생회의 존재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성 관심도인 소속 집단에 관한 관심도는

매우 큰 것이니 그 관심의 表現이런
 불식있는 행동적 참여는 이국 낮은
 것으로 알려주었다. 관심의 수준이
 높은 것은 우리 국민의 일반적 교육
 수준이 높은 것과 해방 이후 잇달았던
 중요한 국내외 경제 문제인 것 같으며
 그러한 높은 관심도에不拘한
 참여의 행동적 수준이 낮은 것은 李朝
 의 黨爭과 日帝의 탄압, 그리고 해방
 후 오늘까지의 국내 정치 상황이 자유
 롭고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허용 하지
 않았다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거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유학하고 있는 이곳에 가지 않고서 의
 문 「말조심」 「몸조심」의 사회 풍조,
 연일 팔리는 연극과 제 1 경제력 시장이
 우리들의 행동 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要因인 것 같다.

이와 같이 制限된 條件 가운데서
 학생회의 책임 맡은 임원들은 회원들의
 참여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여러가지
 바람직한 계획을 추진 해야 할 것이며
 회원들은 각자의 이해가 (분수에 맞고,
 여건이 맞은) 무엇인지를 참여를 통하여
 발표 해야 할 것이다. 이해를 근거로 한
 참여는 동조적인 참여 뿐 아니라 비판적
 인 참여까지 포함하게 된다. 개인의
 이해와 집단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을 때 이와 같은 相反된 利害
 (實) (利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調整하는
 과정)에서 집단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사회학 2)



지난달 제 5호에 실렸던 본보 발전을
 위한 설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회답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드리며 수집된 설문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발표 합니다.

제 1 문 : "학생회보" 제호에 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미 5호나
 이 이름으로 나왔으니, 앞으로 계속 이
 제호로 발간하는 것이 부당하겠단다는 의
 견이었으며 "학생", "학생", "학생" 등
 의 제호를 제안해 주시기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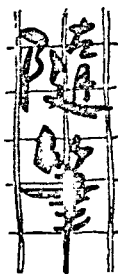
제 2 문 : 고정난에 관하여
 대부분이 고정난을 계속했으면 좋겠
 단는 의견이었으며, 특히 "전공순례"
 와 "학생부인 주간" 은 매우 재미
 있고 유익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제 3 문 : 추천한 실은 난에 관하여
 시사에 관한 난, 미생생애에서의
 경험담, 재미 있는 실험, 취미에
 관한 난 등이 제안 되었음.

제 4 문 : 기타 제언에 관하여
 응답해 주신분들의 제언은 몇가지
 간추려 보면:

- ① 광고를 실는 것이 유익하겠단
 의견.
- ② 교토 선배들의 글도 실렸으면 좋
 겠단 의견.
- ③ 귀중한 선배들의 소식이나 글은 소개
 했으면 좋겠단 의견
- ④ 생활정보에 관한 내용 (즉 집이나
 자동차의 매매, Garage Sale,
 혹은 값이 싼 시장안내 등)을 실었
 으면 좋겠단 의견.

여러분의 귀한 교언은 앞으로 계속
 보내 주시며 배우는 귀의들과 자나가는
 불 회보를 끊임없이 지으 련단 해 주
 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



국제결혼의 변 (續)

- 김동호 -

아빠라보니 국제결혼을 했다.
아빠는 일본사람이요 아이들은
저렴한 값이 싼 사람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전 가족의 국적과 모국어
가 다르며 모두가 저소득국인 미국이 와 처
하고 있는 실이다.

오랫동안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던 거
지인데 여를. 우선 전 가족의 국적과 여권이
모두 다르면 제각각 해당되는 나라의 Visa
부터 받은 수속을 해야 했고 여권사 직원이나
출입국 판서의 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가족의 여권을 보는 눈을 휘둥
그러하면서 하는말은 으레히 "매우 복잡하
한 것이었다.

그러나 해도 한국과 일본에 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띠 달고
서리를 훑라 할려면, 번소에 가고 신라든가,
머가 프드나, 파자좀 주세요 등등... 아이
들이 쓰는 일상생활의 용어를 서안어 말로
으로 List를 만들어 벽에 붙여주고 있어야만
했었다.

먼 여행을 끝마치고 미국에 다시 돌아왔
어젠가 하루는 아이들이 한국노래를 부르다가
물리 보라고 했더니 「산토끼」와 「나미야」를
뒤범벅해서 한라는 소리가 "산토끼 토끼야
시리날라 오버라..." 하는것이 아닌가.
어찌나 듣기에 우습고 기괴양칙 하던지 큰
소리를 못내잖아 웃는 나를 보고는 아내와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왜 웃느냐고 묻기에
웃는 이유를 자초지종 설명해 주었지만,
뜻도 모르면서 엉터리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이

한편으로 어찌나 추은해 보이던지 모른다.

하긴 나로서는 중학교 시절부터 영어로
시작해서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한것이 고등학교
와 과학시절인 독일어와 일본어, 그후엔
생각지도 않던 서안어이며라 물론서까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었으나, 외국어에
큰 흥미나 재능이 별로없는 나와같은 사람
에게 적지않은 큰 시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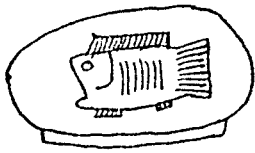
서안은 값이 값수록 모라더 가까워지고
외국과의 접촉이 보라 많아지고 있는리 언어의
장애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정할때마다 이스
피란토어와 같은 국제언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된다. (식물학과)

(6 페이지에서 계속)

이제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차를 사
환라면 인간이 살기에 훨씬리 유리한 환경을
우리에게 구어졌을 것이라고 하면서 나를 깔
기도한다. 모두 다 좋은 소리이네 잔소리가
속들어가 버리곤 한다.

이러한 사소할것 같으나 중요한 매일
매일의 생활에어한 나의 불만은 곰곰히 다시
상각하자니 이상적(理想)과 실제(實際)의 차이
에서 일어난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무인 못하겠다. 나의 이상적인 남편은
나 자신이 되고싶어하는 상이있을 것인리
라만 내가 그러한 사람과 결함함으로서
그런 인물의 소유자가 됐다고 착각한것이
아닐까? 이착각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학생 부부 생활을 이끌어가자니 라우더 두드
러쳐 보이는것 뿐이 아닐까?
이러니 나의 불평불만은 즐거움에서 쓴
약으로 변해버린것 같다.

Robert Baskerville (번역)
氏의 부인



학생부인 유감 ⑥

정 단

각 학생부인의 생활은 본질적으로 한 개인의 생존의 계속이라 하겠으니, 나의 현단계의 생활은 살아던간의 이국문명생활, 결혼생활, 그리고 뒤늦은 대학 생활이라 하겠다. 워낙 나는 불평하는데 증거들을 찾는것 같으니 학생부인으로서 무슨 불평꺼리가 있나 좀 듣쳐볼까 한다.

부인으로서 불만이 있다면 근원은 두괄없이 남편이고 불만의 내용은 아아도 이상적인 남편상과 실제남편의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과연 나의 이상적인 남편상은 무엇이였을까?

첫 이상적인 남편상은 아아도 슬팠어도 하지않는 비참이었던것이 다음단계로는 소설이나 겨우 나뉠만한 인물을 그렸던것 같다. 즉 예술과 철학을 탐구하고 야근 자만심이 없고 길치레하지 않는 인격자. 물론 이러한 지경을 도달할수있는 조건으로서 선천적으로 여러면이 탁월하여 건강하고, 용모가 뛰어나고, 총명할뿐 아니라 지혜롭고, 선량하여 재질을 남에게 허가 없이 유용하게쓰고 절구는 무의식중에 유명한 인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다.

다형인지 불형인지 적어도 재질이 탁월하고 가식이 없어야와 백년가약을 맺게 되였다. 그의 삼생활을 구체적으로 들어볼것 같으면 초라한 직업에 만족하고, 유류어선 공부를 좋은 음식이라 여기고, 걷거나 뺨쓰라는것이 자기몸을 물고 다는것보다 개인건강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 좋고, 같은 사유로 온 집안의 품이 온도를 높이는 대신 추우면 두꺼운 슈타를 꺼내는것이 좋으며, 날이 안지르하게 만든 가구보라 손수만은 의자가 비록물결하나아 더 창조적이고 재이있으며, 공장가공식품 보라 비록 시간이 걸리고 생가셔도 집에서 만든 빵이나 밀수가 맛도 더있고 영양가치도 높아서 좋고, 몇년후에나 예정한 우리아기의 장래는 한국어를 배울것이며, 길치냄서에 대한 나의 큰 야망이 양고기에도 있어야 하고 ... 등등. 이와같은 남편의 깊은 생각과 사려가 많은 실천이 전적으로 찬성하나아 나의 한 마음구석에는 다른 생각이 도사리고 있음을 가끔 느낀다. 세번고 비싼옷을 입고다니며 뺨고 짧은 바음도 있는 한다. 볼과 입술이 붉은칠을, 눈에 파랑칠을 그리고 손톱이 무자연 스러운 짓을 한라고 은근히 언짢아 하는 태도를 갖는것을 느낄때는 반발감이 솟아올라 남편의 걱정말라고 툭 쓰기도 한다. 내가 거첫방이 비싼가구를 장식하고 손라면 한국의 전통적인 거실의 유아함과 권리성(?)을 꺼쳐놓고 미국중류가정 흉내안 벌려고 하나고 할때는 앞은이 안하곤한다. 어쩌라 뺨스를 놓쳐서 오래 기다려야 하면 짜증같이 우리가 차가없어 내가 고생(?)이 많라고 하면서 차한어 사자고 불평을 가끔한다. 그럴때면 차가 인류에게 가져온 수많은 혜택을 되풀이 하면서 우리같은 보통사람이 조국의 불면성을

(5페이지에 계속)



전공순서 ⑥
(生体工学)
Bioengineering
박 준부

Bioengineering이란 관어가 생긴 것도 뭘로 오려볼것이 아닌지 두터운 비유사건에도 없을 지경이니 무어라고 정의부러 내리기가 힘이다. 우선 "Bio-"란 Life를 의미하니 간단히 이야기해서 「생물체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공학)」 정도로 하는것이 좋겠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Bioengineering도 깊이따고들면 내용이 복잡해진다. 주로 지금 여기서 열을내서 연구하는것은 크게 나뉘어서 세분야라고 할수있겠다. 첫째는 人体의 각기관의 기능과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 할려는 것으로 예를들면 뼈, 살, 근육, 비리털, 동맥, 정맥, 심장, 허파, 등등의 기능과 그자체의 구성요소와 변화, 병이 생기는 이유와 생겼을때 관리하는 방법, 클성, 구조, 이것을 detach 할수 있는 방법등을 이루어야 할수 있을정도, 둘째는 한 기관이 병이 나거나 사고로 기능을 상실했을때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인조기관 (인공허파, 심장, 동맥, 유방등등)을 되도록이면 대체할 기능을 똑같이 가질수있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물론 rejection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것이 커다란 문제로 되어있지만), 셋째는 수술을 할때 도와주는 가를 만들어내고 또 일부의 기관이 기능을 상실했을때 체외(体外)에서 그 기관에 대체해서 쓸수있는 기계(인공 Kidney dialyzer, 호흡기등)를 만들어내고 monitor 할수있는것을 연구 하는 것이라 할수있겠다. 아직도 유년기를 벗어 나지 못한 학문이라 사람이라 정의하는

것이 다른 대학마다 연구하는것이 다르니 초년명인 내가 어떻게 떠들어대는것이 좀 무리 한것같다. 이 학교에서 주류연구하는것은 Bioinstrumentation, Bio-materials, Biomedical assisting devices 등으로 Center for Bio-engineering의 총예산은 약 50만불 정도, Division of Bioengineering 것과 합하면 약 80만불 이상으로 인원은 약 40명 (20명이 대학원생)으로 아직 내어가는 둘째가라면 서러울정도로 이름있는 연구기관으로 발전되어있다.

내가 주로 연구하는것은 대동맥(Aorta)의 물성과 기능에 대한것으로 (미국에는 동맥 경화로 큰 골치를 앓고있는리 주 원인은 기름진 것을 너무많이 먹는것으로 「Cholesterol」의 흡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것이라 할수있겠다 - milk, meat, egg, bacon, 등이 가장 많은 Cholesterol 함유 음식이니 우리 같이 채식하는 사람들이면 좀 다행이지만) 궁극 목적은 동맥경화에 따른 물성의 변화, 성질 구조를 잘 알아서 이것을 사전에 발견 내지 치료를 주로 생각하고 있다. 전공을 주로 제물로 쓰인 사람의 동맥도 슬쩍 찢러라 쓰는 것이니 직업치고는 밥맛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뉘는 - . 그러므로 이제는 post-doc. 으로 이것을 연구한 것도 일년이 보외 전공하느꼐 허 차우는데는 뭘로 힘이 안드나 아직도 머리끝까지 바글까지 따져지는 Autopsy (신체해부)를 보면 비위가 상해서 전신을 굶어야 되니 아직도 훈련이 덜된 것일까? 그래서 이것만은 바깥에 있는 대학원생을 사켜서 좀 편하긴 하지만... 사람 때문에 죽어가는 엄청난게 많은 동물들

(대학병원 술 6층에는 개, 원숭이, 토끼, 자라, 거북, 소, 말, 돼지, 쥐, 각종의 새, 뱀 등등 여러 날고, 가고, 해임하는 동물은 다 못이 동고 祭物로 쓰도록 처리 하는 있다) 물론 祭物의 처리에는 호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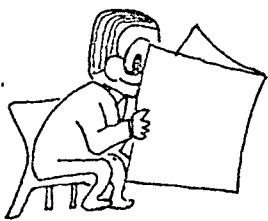
을 하지만 (木公 故에 드는 하록 비룡이 기 심불이러나 사람 된다 그 잘 먹은 병 약이 개죽이 지내지만) 人間은 이복래도 너무 상인한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공학 박사)



신 수 한 문 손

조 미 정

손가락 끝에
조심스런 이슬이 맺기 시작할 때,
내 가지는 북으로 흔들렸다.
이런애의 손질한 반복이
窓 너로 꽃겨울 뒤
'산도구가 필요해.'
변개 외성
가슴이 박아 두고
이슬은 열이아 한다.
열기 리는 소리 몇은 뒤
가만히 더 오르는 기성의 미소,
그리고 내 일의 권 휘 랑물.
'산도구가 필요해.'
꿈 담은 꽃이불 벗어갈 수록
어둠속
푸른 칼의 이시러운 춤
쏟아 지는 산도구들. (인어학사)



◆ 편 집 후 기 ◆

◎ 이 번호 편집과 제작을 위해 자리를 비운해 국산 유재한 문헌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대립받은 특정한 비평방의 珍味에 (無然陶醉 뒤의 식사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일손을 잠을 수 있었음을 밝힌 남의가야 있다.

- ◎ 한인회 전 제상 박사에게 간곡한 내용의 격려의 편지와 함께 구독료(?) 10萬 원 보내 주셨다. 순 박사님께 감사 드린다.
- ◎ 오는 7, 8 월에는 本報를 夏休休刊을 하야 할것 같다. 새학기 를 맞는 9월에는 合併목로 알차고 다양한 편집을 기획해 볼것을 약속한다.